

김도영도 없고...나성범도 없고...KIA, 또 부상 악몽

나성범 종아리 부상 8주 결장
KIA 새판 짜 초반 싸움 벌여야
새 얼굴 변우혁 활약에 기대



KIA 타이거즈가 또 다른 부상 악재를 만났다. '주포' 나성범의 복귀가 무산됐다.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최대 8주 가장 부상 공백이 예상된다.

KIA는 5일 "나성범이 검진 결과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 4주 휴식 소견이 나왔다. 2주 뒤 재검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WBC에 참가했던 나성범은 종아리 통증으로 시범경기에서 지취를 감쳤다. 나성범은 3월 29일 퓨처스 선수단과 동강대와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시동을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종아리에 불편감을 느낀 나성범은 예정됐던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통증이 계속되면서 구단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손상이 발견됐고, 5일 서울 세종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해 동일한 소견을 받았다.

'주포'의 복귀를 예타게 기다렸던 KIA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KIA는 개막과 함께 '키플레이어' 김도영을 잃었다. 김도영은 지난 2일 SSG와의 시즌 2차전에서 홈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중족골 골절(5번째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 4일 핀 고정 수술을 받은 김도영의 복귀까지는 12-16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나성범까지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KIA는 개막부터 부상 고민을 안게 됐다.

스피드와 힘으로 KIA 타선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복귀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만큼 KIA는 당초 구상과는 다른 새판을 짜서 초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최고장' 최형우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최형우는 팀 위기 상황에서 경험을 앞세운 승부로 부상 공백을 지워줘야 한다.

황대인과 변우혁 두 '우타거포'의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분위기 메이커' 황대인은 이어진 악재 속 턱아웃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타석에서의 활약이 중요하다.

황대인은 지난해 5월 소크라테스와 '황소 듀오'를 구성해 타선을 이끌었다. 황대인의 성적에 따



나성범

라 팀도 울고 웃었다. 올 시즌에도 부상 악재 속 황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 얼굴' 변우혁도 KIA가 기대하는 인물이다.

변우혁은 새 팀에서 첫 경기였던 지난 2일 SSG전에서 홈런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했다. 4일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지만 2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등 침착한 승부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나성범 빠진 외야에서 이창진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손목 부상을 당했던 그는 나성범의 부상과 김석환의 부진 속 초반 기회를 얻었다. 나성범의 공백이 길어지게 된 만큼 지난 여름 보여준 뜨거운 질주로 위기의 팀에 힘을 더해줘야 한다.

이창진은 지난해 7월 0.476의 타율을 찍으면서 생애 첫 KBO 월간 MVP를 수상했다.

이창진은 "나는 원래 항상 경쟁 했었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으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안 다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 캠프 때 미리 다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7월에는 '야구가 이렇게 쉬었나'라는 건방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 꼬꾸라지면서 '나 아직 멀었구나'를 생각했다. 더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됐다"며 "그래서 체력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월에 달리면서 나도 모르게 스피드 이런 게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그린몬스터 넘기고 막고...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이 5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 공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하며 최고의 날을 보냈다. 배지환이 '그린 몬스터'를 넘기는 홈런을 때린 뒤 그라운드를 도는 모습(왼쪽)과 8회에는 2루수에서 중견수로 자리를 옮긴 뒤 라파엘 데버스의 안타성 타구를 점프 캐치로 걷어내는 모습.

데뷔 첫 홈런·슈퍼 캐치 '배지환의 날'

MLB 14경기만에 첫 대포
피츠버그 4-1 승리 이끌어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이 '그린 몬스터'를 넘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첫 홈런을 터뜨리고 호수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해적 군단'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했다.

배지환은 5일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8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0-1로 뒤진 2회 전세를 뒤집는 투런 홈런을 쳤다. 2회초 2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배지환



은 보스턴 우완 선발 투수 닉 피베타의 바깥쪽 시속 94.8마일(152.5km)짜리 속구를 결대로 밀어 왼쪽 담을 직선으로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쳤다.

백리코 통산 출전 14경기 만에 나온 첫 대포다. 배지환은 이 홈런으로 시즌 첫 타점도 수확했다.

배지환의 타구 속도는 시속 164km, 홈런 비거리는 109m로 측정됐다.

지난해 백리코에 데뷔해 올해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배지환은 1912년 개장해 올해 운영 111년째로 MLB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첫 아치를 그려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남겼다. 펜웨이파크의 명물인 그린 몬스터는 높이 11.3m의 왼쪽 펜스를 뜻한다. 펜스 위쪽에도 관중석이 있다.

배지환의 홈런은 그린 몬스터 관중석 1열에 떨어졌다. 피츠버그가 4-1로 승리하면서 배지환의 홈런은 역전 결승포가 됐다.

배지환과 피츠버그의 또 다른 한국인 타자 최지만, 일본인 요시다 마사타카(좌익수), 대만 출신 장위정(2루수·이상 보스턴) 등 아시아 스타들이 총출동한 이날만큼은 배지환이 가장 빛났다.

배지환은 4회 삼진, 6회 땅볼, 9회 외야 뜬공으로 타격을 마감했다. 5번 지명 타자로 출전한 최지만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연합뉴스



김주형이 4일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마스터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연습 라운드 중 8번 홀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공사-흥국생명 챔피언결정전 '끝장 승부'

한국도로공사가 홈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2022-2023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 5차전이 성사됐다. 프로배구 여자부 역대 네 번째 '끝장 승부'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고,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을 모두 따냈던 흥국생명은 6일 홈으로 돌아와 한국도로공사와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여자부 챔피언이 마지막 경기에서 갈린 건 2005-2006, 2011-2012, 2013-2014시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05-2006시즌에는 흥국생명이 1승 2패에 물린 뒤 2연승을 거둬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KGC인삼공사는 2011-2012시즌에 현대건설과 맞붙어 1, 3, 5차전을 승리해 우승

을 차지했다. 2013-2014시즌에 GS칼텍스도 4, 5차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연파해 챔피언 승자가 됐다.

이번 시즌 한국도로공사는 1, 2차전을 모두 내준 뒤 챔피언결정전을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가는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5차전에서도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하면 2007-2008시즌 GS칼텍스, 2008-2009시즌 흥국생명이 이어 역대 3번째로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치고,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하는' 진기록도 작성한다.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6회), 챔피언결정전 우승(4회),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 동시 달성 3회) 모두 여자부에서 가장 많이 달성한 구단이다. /연합뉴스

김주형, 1·2라운드 매길로이와 동반 플레이



5일 발표된 올해 마스터스 1, 2라운드 조편성을 보면 김주형은 매길로이, 샘 번스(미국)와 함께 한국시간 7일 오전 2시 48분 1라운드를 시작한다. 김주형은 올해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하지만 4일 연습 라운드를 타이거 우즈(미국), 매길로이, 프 레드 컵스(미국)와 함께 치렀고, 5일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도 초대됐다.

김시우, 필 미컬슨과 라운드
임성재는 마쓰야마와 한 조

김주형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기록 중이다.

김시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의 간판적인 필 미컬슨(미국)과 1, 2라운드를 함께 치른다.

김시우, 미컬슨, 톰 호기(미국) 조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1시 24분에 1라운드를 시작한다.

임성재는 2021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를 제패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지난해 디오펀

에서 우승한 뒤 LIV 시리즈로 이적한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한 조로 묶였다.

임성재, 마쓰야마, 스미스 조는 6일 밤 11시 54분에 1라운드 티샷을 날린다.

이경훈은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 해럴드 바너 3세(미국)와 같은 조로 1, 2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잔더 쇼플리(미국)와 함께 1, 2라운드 같은 조가 됐다.

올해 마스터스는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45야드)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연합뉴스